

SERMON 6 AUGUST 2017

몇 주 전 클라이브와 저는 영화 '딩케르크'를 보러 갔습니다. 그것은 5성급 등급을 받았으며 젊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라면, 저는 그 특별한 부분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딩케르크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총격, 폭파, 죽음, 그리고 공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절제된 행동이었습니다. 대화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영화가 촬영되는 도중에 고통과 긴장감이 표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썰물 때 해변의 긴 파도를 보실 수 있고, 기둥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득 타고 있는 작은 지뢰 제거 장치 하나가 나무 서까래에 묶여 있는 채로 꽂차 있는 나무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평선 너머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평선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오직 한 척의 해군 함정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정부가 이용 가능한 선박들이 곤경에 처한 4만명에서 3만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자비로움에 맡겨 둘 프랑스인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은 영국 남부 해안의 작은 항구와 그녀의 주인인 트워드 재킷과 조끼를 입고 있는 그의 아들과 함께 작은 나무

보트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정부 소유의 선박 소유자들이 "Dunkirk"의 해변에 있는 해협을 향해 해협을 건너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트 소유주인 이 남자는 조용한 위엄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몇 분은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엔 338,000 명의 사람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00 개의 작은 민간 선박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덩케르크의 기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한 오천 명의 남성들이, 마태복음서는 아마 팔 천명이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빵과 물고기.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양분으로 상징이 되었고, 그것은 충분하고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네 개의 복음서 작가들이 들려주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어린 소년이 와서 그의 다섯 개의 보리 덩어리와 두 개의 물고기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의 관대함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이 영양의 기적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기적이고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그 구절은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 마태의 강조를 잃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낭독한 구절들 바로 전에, 마태는 어떻게 헤롯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왕이 술에 취해서 그의 조카에게 무엇이든 원하면 주겠다고 그의 조카딸에게 경솔한 약속을 합니다. 그녀는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고 그들 모두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더럽혀졌습니다. 헤롯왕은 그의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스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레 요한이 헤로디아스의 요청에 따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세레 요한은 이 관계를 말 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세레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세레 요한은 죽게 됩니다. 술 취한 약속 때문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수 되었습니다. 요한의 폭력적인 죽음은 위험한 정치적 상황의 지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쉽게 변할 수 있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슬픔을 흡수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했지만 군중들은 마을 주변을 따라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은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치유를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안에 희망을 가진 빈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간과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배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실용적인 것은 위압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함 없이 가곤 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그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자신들의 그룹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드리고,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슬픔에 맞서, 삶에 대한 동정과 감사와 함께 빵을 찢고 제공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중에 최후에 만찬에 할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나중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의 향연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취한 술과 그가 휘두른 정치적, 비도덕적인 힘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 줍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로 갈 때, 그것은 복을 받고 그 축복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축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작든지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개인들로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제공할 때, 그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듣습니다. 군중들은 만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다양한 선택과 중압감이 있지만, 그들이 충분히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족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이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의 축복의 과실이, 우리 삶의 색깔들이 꽃 피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주에 "현대인들은 우리가 삶의 기적에 대한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기적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는 글을 읽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아주 수평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루이스와 해리스 섬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아우터 헤브리디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루이스에서 발전했고, 그 책은 그가 걸어 다닌 곳에 대한 그의 성찰과 거기에 새겨진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도보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동화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인 영역의 외향성은 일상 생활의 패턴으로 넘어가고 간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원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람은 일종의 자연스런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쁜 도시에서도 다른 삶을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견제를 하는 것들로 가득 찬 더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조롭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펼쳐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에 대한 아이디어는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던 기적을 실제로 보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만족의 원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풍부하고, 모두에게 넘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 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대조되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함을 창조하시는 동정과 관대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위한 양식으로 제공되는 은혜와 풍요의 기적을 듣기 위한 귀, 보기 위한 눈, 이해하기 위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